

조선후기 통신사행록 속에 나타난 전쟁의 상흔, 그리고 부산

정은영*

차 례

1. 서론
2. 통신사와 임진왜란
3. 국내 노정에서 느낀 전쟁의 상흔,
그리고 부산
4. 결론

국문초록

부산은 임진왜란, 또 통신사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부산은 임진왜란 최초의 전투가 벌어진 곳이자 7년 간 일본군의 병참기지 역할을 했기에 전쟁의 흔적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공간이었다. 아울러 부산은 통신사 노정의 종착지이자 일본으로 떠나는 출발지였다. 그래서 조선후기 통신사행록 속에는 부산의 다양한 모습이 기록되어 있다.

그 중 하나는 임진왜란에 대한 기억이다. 통신사의 국내노정은 임진왜란 당시 일본군의 북상 경로와 비슷하였기 때문에 통신사행록에는 노정 중에 목도하게 된 전란의 흔적이 고스란히 기록되어 있다. 통신사행원들

* 부산대 강사.

은 일본에 대한 적개심을 애써 누르며 복명사신으로서의 임무를 다하려고 했지만 부산으로 내려오는 국내 노정 중에, 또 부산 체류기간 동안 곳곳에 남아있던 임진왜란의 흔적을 직접 보았고 전쟁으로 야기된 경제적 열악함을 몸소 겪었다. 그러한 경험은 일본군이 퇴각하는 것에서 전쟁이 끝나지 않았음을, 또 수십 년이 지난 시점까지 그 상처가 아물지 않았음을 깨닫게 하였다. 조선후기 통신사행록에는 임진왜란의 흔적이 남아있는 한 전쟁과 그로 인한 고통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는 점이 뚜렷하게 기록되어 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전쟁의 흔적은 점점 멀어지게 되었다. 대신 임진왜란의 참상과 고통을 기억할 수 있는 공간이 국가 혹은 지방 주도로 조성되었다. 더 이상 전란의 흔적을 찾아볼 수 없는 시점에 일본으로 파견된 통신사행원들은 동래의 충렬사, 부산진성과 영가대의 기념비 등을 통해 조국을 위해 목숨을 바친 조상들의 충성심과 절개를 내면화하고 조선에 구원병을 보낸 명나라를 기념하였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임진왜란을 기억하는 한편 일본에 대한 경각심을 되새겼다.

주제어 : 통신사, 통신사행록, 임진왜란, 부산, 전쟁 기억

1. 서론

조선후기 통신사는 임진왜란으로 단절되었던 조선과 일본의 국교를 재개하고 일본의 재침략 가능성을 탐색하기 위해 파견되었다. 그래서 조선후기 통신사행록에 대한 기존의 연구 대부분은 통신사행원들이 일본에서 수집한 정보의 내용과 그 속에 투영된 통신사의 일본(인) 인식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되었다. 하지만 통신사의 노정은 임금께 辭朝하고 서울을 출발하는 것에서 시작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통신사와 관련된 다양

한 의례가 거행되었다. 그 중에서도 부산은 국내노정의 종착지이자 일본으로 떠나는 출발지였으며, 사행에 대한 최종 점검이 이루어지는 장소였다. 그래서 통신사와 관련하여 부산의 장소성을 다룬 연구가 진행되었는데 부산 영가대에서 거행된 해신제¹⁾에 관한 연구, 부산에 남아있는 통신사 유적²⁾에 대한 연구가 대표적이다. 하지만 이들 연구는 통신사와 부산의 관련성이 전체 내용의 일부에 불과하다는 한계가 있다. 통신사와 부산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는 김동철과 한태문에 의해 이루어졌다. 김동철은 부산 지역에서 이루어졌던 통신사에 대한 접대, 좌수영의 通信使船 건조, 격군·소통사 등의 지역민 차출³⁾ 등에 대해 자세히 분석하였다. 한태문은 김동철의 논의를 확장하여 통신사행록에 나타난 부산의 역할을 대일 외교의 중심지, 국가 차원의 전별연의 개최지, 도일 전 통신사행의 최종 점검지, 통신사행의 왕환지점으로 나누어 분석하는 것은 물론 충렬사·영가대·해운대·태종대 등 조선후기 통신사 문학 속에 등장하는 부산의 모습을 살펴보았다.⁴⁾ 최근에는 단일사행으로는 가장 많은 사행록이 남아있는 1763년 계미통신사로 논의를 한정하여 통신사의 부산 체류 양상을 자세하게 살핀 연구⁵⁾도 진행되었다. 한편 임진왜란과 부산의 관련성을 다룬 연구는 문학적 측면⁶⁾, 역사적 측면에서 이루어졌는데,

-
- 1) 송지원, 『조선통신사의 의례』, 『조선통신사연구』 제2호, 조선통신사학회, 2006; 이경희·조수미·한태문, 『永嘉臺 海神祭 祭需 요리의 원형복원에 대하여』, 『조선통신사연구』 제8호, 조선통신사학회, 2009.
 - 2) 김동철, 『부산의 일본 관련 문화유적과 활용방안』, 『한국민족문화』 23권,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2004.
 - 3) 김동철, 『통신사행과 부산의 역할』, 『통신사 한·일 교류의 길을 가다』, 조선통신사문화사업추진위원회·경성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03.
 - 4) 한태문, 『통신사문학에 반영된 조선시대의 부산 - 『해행총제』 소재 사행록을 중심으로』, 『항도부산』 21권, 부산광역시사편찬위원회, 2005.
 - 5) 정은영, 『1763년 계미통신사의 부산 체류 양상 연구』, 『조선통신사연구』 제28호, 조선통신사학회, 2019.
 - 6) 이성혜, 『임진왜란이 만든 부산문학』, 『한일군사문화연구』 제14집, 한일군사문화학회, 2012.

특히 부산에서 벌어졌던 전투를 중심으로 그것이 어떻게 기억·전승되었는지 살펴보는 연구⁷⁾가 활발히 전개되었다.

그런데 지금까지의 연구는 임진왜란과 부산, 부산과 통신사로 나누어져 진행되었다. 그러나 임진왜란의 발발 이전, 그리고 전쟁 중은 물론 종전 이후에도 통신사가 파견된 점을 고려하면 임진왜란과 통신사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하겠다. 그러므로 이 글에서는 조선후기 통신사행록에 등장하는 임진왜란 관련 흔적과 기억을 부산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2. 통신사와 임진왜란

100년간의 전국시대를 평정하고 일본 통일을 눈앞에 두고 있던 織田信長이 本能寺에서 암살되자, 秀吉은 서둘러 암살범 明智光秀를 토벌하고 신장의 후계자가 되었다. 1585년 關白에 오른 수길은 조선과 중국을 차지하겠다는 야욕을 공공연히 드러내었는데 1586년 6월에는 대마도주를 불러 조선 국왕이 入朝하지 않으면 조선 정벌을 단행하겠다는 뜻을 전하였다. 하지만 조선 조정이 수길의 뜻에 따르지 않을 걸 알았던 對馬島主는 수길의 본뜻은 감춘 채, 새로운 관백의 즉위를 축하하는 통신사를 보내 달라며 가짜 일본국왕사를 조선에 파견하였다.

7) 변광석, 「임진왜란 이후 동래부사의 동래지역 인식과 기억사업」, 『지역과 역사』 26호, 부경역사연구소, 2010; 오인택, 「조선후기 ‘충렬공 송상헌 서사’의 사회문화적 성격」, 『역사와 세계』 40, 효원사학회, 2011; 김강식, 「조선후기의 임진왜란 기억과 의미」, 『지역과 역사』 31호, 부경역사연구소, 2012; 양홍숙, 「부산의 임진왜란 기념물 조성과 도시경관화」, 『지역과 역사』 40호, 부경역사연구소, 2017; 김경태, 「임진·정유재란기 동래 지역의 전황—일본군의 주둔 동향과 조선의 대응을 중심으로—」, 『항도부산』 38권, 부산광역시사편찬위원회, 2019.

- 상이 ‘일본국은 국왕을 폐하고 새 임금을 세웠으니 바로 찬역의 나라 이므로 그들이 보내는 사신을 접대할 수가 없다. 마땅히 대의로 타일러 돌려보내야 한다. 중2품 이상은 그 가부(可否)를 비밀리에 논의하라.’ 하니, 모두들 ‘미개한 나라이기 때문에 예의로써 나무랄 수는 없다. 사신이 올 경우엔 의례대로 접대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였다. 신왕(新王)이 보낸 사신이 이미 대마도에 당도했다는 것을 도주가 책契로 먼저 통지하였었다.⁸⁾
- 玄蘇 東堂과 부관 승 대마도주의 둘째 아들 平義智와 侍奉僧 瑞俊 등 正官이 半儻 8명을 합하여 모두 25명을 거느리고 나왔는데, 부관 평의지가 말하기를 “사사로이 진상하는 안장을 갖춘 말 1필과 잡물에 대하여 품질을 살펴보기 바랍니다.”라고 하였습니다. 客人들의 말이 “이번에는 오직 通信을 위해 나왔다.”라고 하기에, 신이 “別幅에 기재되지 않은 물품은 사사로이 살펴볼 수 없으니 조정에 아뢰어 처리를 기다려야 한다.”라고 하였습니다.⁹⁾

조선 조정에서는 일본까지의 海路에 익숙하지 않다는 점을 들어 통신사 파견 요청을 거절하였다. 그러나 조선 국왕의 입조를 성사시키라는 수길의 거듭된 명령에 대마도주는 현소를 정사로, 자신의 아들 평의지를 부사로 한 일본국왕사를 다시 파견하면서 일본의 길 안내를 대마도가 담당하겠다고 조선 조정의 거절 명분을 봉쇄하였다. 결국 유성룡 引見 후 선조는 2년 전 발생한 왜구의 損竹島 약탈 사건을 언급하며 그 때 잡혀갔던 조선인을 쇄환하고 왜적의 우두머리를 잡아서 조선에 보낼 것을

8) 『선조실록』 21권, 20년 10월 20일(을해), “上以日本國廢放其國王 而立新君 乃纂弒之國 不可接待其來使 當以大義開諭入送 從二品以上 秘密議其可否 皆以化外之國 不可責以禮義 使臣出來 則依例接待爲當 新王遣使 已到對馬島事 島主先通書契”

9) 『선조실록』 23권, 22년 6월 30일(을사), “玄蘇(東望)[東堂]副官僧對馬島主第二子 平義智 侍奉僧瑞俊等正官 率伴儻八人 合二十五人出來 副官平義智言內 私進上鞍 俱馬一匹及雜物 願竝看品云云 客人等咸言 今行唯以通信一事委來云 臣答以別幅 不付之物 不得私自看品 當啓稟朝廷 以待處置”

제안하였다. 이에 대마도주는 1590년 2월, 손죽도 약탈 사건에서 길안내를 했던 진도 사람 沙乙火同과 왜적 信三甫羅·緊要時羅·望古時羅는 물론 조선인 포로 130여 명을 쇄환하여 조선에 보냈고, 조선 조정에서는 그해 3월 통신사를 파견하였다.¹⁰⁾

그러나 경인사행은 대마도주가 조선 조정과 관백 수길을 속이고 성사시킨 일이었기에 통신사와 대마도주, 그리고 관백 사이의 갈등은 불가피한 것이었다. 경인사행원들은 일본측에서 迎接使를 보내지 않아 한 달을 대마도에 체류해야 했으며, 大坂에 도착하고도 5개월 간 관백 수길을 만날 수 없었다. 그러나 이보다 더 큰 문제는 관백 수길이 선조에게 보내는 答書의 내용이었다.

- 앞에서는 “한 번 뛰어 바로 大明國에 들어가서 4백여 주를 우리 풍속으로 바꾸고 帝都에서 억만년토록 政化를 시행하겠다.” 하였으니, 이것은 귀국이 대명을 빼앗아 일본의 정화를 베풀고자 한다는 말이고, 뒤에는 “귀국이 먼저 입조한다면 원대한 생각이 있고 가까운 근심은 없을 것이다.” 운운하였으니, 이것은 귀국이 우리나라에서 오늘날 사신을 보낸 것을 가지고 원대한 생각이 있다고 말한 것입니다. 존사께서는 과연 이 ‘朝’라는 글자를 대명에 조회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까. 그 아래에 또 “먼 지방에서 뒤늦게 오는 무리는 허용할 수 없다.”라고 하였는데, 이것은 귀국에 먼저 입조하는 자는 허용하고 뒤에 오는 자는 벌을 준다고 한 말입니다. 또 “내가 대명에 들어가는 날에 군사를 거느리고 군영을 바라보면서 이웃 나라와의 맹약을 더욱 닦을 것이다.”라고 하였는데, 이것은 귀국이 모든 나라로 하여금 군사를 있는 대로 거느리고 정벌하는 데 따라오게 하겠다는 말입니다.

10) 경인사행 파견 과정에 대해서는 하우봉, 「김성일의 일본 인식과 귀국보고」, 『한일관계사연구』 43호, 한일관계사학회, 2012, 141-142쪽; 90-93쪽; 한태문, 「경인통신사(1590)의 문화사절로서의 성격」, 『동양한문학연구』 제36집, 동양한문학회, 2013, 310-311쪽 참조.

(중략) 귀국의 답서에는 그런 일에 대하여 감사하다는 뜻은 생략해 버리고, 도리어 나라의 위세를 장황하게 늘어놓아 병력을 자랑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심지어는, ‘먼저 와서 입조한다.’는 내용으로 글을 지었으니, 어찌 예로써 이웃 나라와 사귀는 도리라 하겠습니까.¹¹⁾

처음 일본측에서는 통신사가 귀국길에 오르면 답서는 나중에 따로 보내겠다고 하였으나, 三使가 불가하다며 이를 수용하지 않자 답서를 보냈다. 하지만 이번엔 그 표현이 문제였는데 ‘閣下’, ‘方物’, ‘入朝’ 등 통신사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단어가 사용되었던 것이다. 일본은 ‘합하’와 ‘방물’ 두 가지는 통신사의 의견을 받아들여 ‘殿下’와 ‘禮幣’로 수정하였으나, ‘입조’는 ‘大明入朝’를 뜻한다고 핑계를 대며 수정을 하지 않았다. 부사 김성일은 전후 맥락을 살폈을 때 ‘입조’의 주체가 일본의 관백이 아니라 조선 국왕임을 들어 답서의 내용을 고칠 것을 요구하는 동시에 답서의 내용 자체가 교린 관계에 있는 국가 간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수용 불가의 입장을 밝혔다. 무엇보다 답서에서 수길은 명 정벌을 단행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는 동시에 조선이 여기에 동참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조선이 일본과 뜻을 같이 하여 명 정벌에 나서는 것, 또 조선 국왕이 일본을 상국으로 섬겨 입조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그렇기에 정사 황윤길은 부산에 도착하자마자 일본이 조선을 침략할 것이라는 장계를 올렸다.

- 부산으로 돌아와 정박하자 황윤길은 그간의 실정과 형세를 馳啓하면

11) 김성일, 『해사록』 4, 「서간」, <答玄蘇書>, “先則曰一超直入大明國 易吾朝風俗於四百餘州 施帝都政化於億萬斯年 是貴國欲取大明 而施日本政化之謂也 後則曰貴國先驅而入朝 有遠慮無近憂云云 是貴國以我國今日之遣使 爲有遠慮之謂也 尊師果以此朝字 指爲朝大明耶 其下又曰 遠方後進輩者 不可作許容也 是貴國先朝者許容 後至者有戮之謂也 又曰予入大明之日 將士卒望軍營 則彌可修隣盟也 是貴國欲令諸國 悉索弊賦從征之謂也 (中略) 貴國書契中 略其報謝之意 而反爲之張皇國威 欲以兵力誇耀之至 以先驅入朝爲文 豈以禮交隣之義乎”

서 ‘필시 兵禍가 있을 것이다.’고 하였다. 복명한 뒤에 상이 인견하고 하문하니, 윤길은, 전일의 치계 내용과 같은 의견을 아뢰었고, 성일은 아뢰기를, “그러한 정상은 발견하지 못하였는데 윤길이 장황하게 아뢰어 인심이 동요되게 하니 사의에 매우 어긋납니다.”라고 하였다. (중략) 당시 조헌이 和議를 극력 공격하면서 왜적이 기필코 나올 것이라고 주장하였기 때문에 대체로 윤길의 말을 주장하는 이들에 대해서 모두가 ‘西인들이 세력을 잃었기 때문에 인심을 요란시키는 것이다.’고 하면서 구별하여 배척하였으므로 조정에서 감히 말을 하지 못하였다. 유성룡이 성일에게 말하기를, “그대가 황의 말과 고의로 다르게 말하는데, 만일 병화가 있게 되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시오?”라고 하니 성일이 말하기를, “나도 어찌 왜적이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단정하겠습니까. 다만 온 나라가 놀라고 의혹될까 두려워 그것을 풀어주려 그런 것입니다.”라고 하였다.¹²⁾

황윤길은 復命을 하는 자리에서도 일본이 조선을 침략할 것이라는 기존의 입장을 강하게 피력하였다. 하지만 부사 김성일은 답서를 통해 전쟁 발발의 가능성을 감지했음에도 민심의 동요를 우려해 일본 침략을 단정할 수 없다는 의견을 아뢰었다. 일본의 침략 가능성을 두고 정사와 부사의 의견이 달랐으나 당시 조정에서는 황윤길의 의견을 권력을 빼앗긴 서인이 정국을 뒤흔들려 낸 술책으로 치부했다. 물론 조선이 먼저 통신사와 함께 부산에 들어 온 倭使를 죽이고 중국에 자문을 보내 일본의 침략에 대비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지만 묵살되었다. 여기에 대마도주가 보낸 현소가 수길의 도발은 중국이 일본의 조공을 거절했기 때문이

12) 『선조수정실록』 25권, 24년 3월 1일(정유), “回泊釜山 允吉馳啓情形 以爲必有兵禍 既復命上引見而問之 允吉對如前 誠一曰 臣則不見如許情形 允吉張皇論奏 搖動人心 甚乖事宜 (中略) 時趙憲力攻和議策倭必來 故凡主允吉之言者 皆以爲西人失勢 搖亂人心 區別靡斥 以此廷中不敢言 柳成龍謂誠一曰 君言故與黃異 萬一有兵禍 將奈何 誠一曰 吾亦豈能必倭不來 但恐中外驚惑 故解之耳”

라며 조선이 두 나라 사이를 잘 중재하여 조공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하면 전쟁의 위협도 사라질 것이라고 해결방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조선 조정에서는 이런 상황을 중국에 알리는 것조차 합의하지 못한 채 제대로 된 방비책을 구축하지 않았다.

그리고 1592년 4월 14일, 임진왜란이 발발하였다. 小西行長과 대마도주 평의지로 구성된 일본 제1군이 4월 13일 대마도를 출발하여 4월 14일 부산 앞바다에 이르렀다. 소서행장은 부산진첨사 정발에게 ‘入明假道’를 요구하였으나 정발은 거절하였고 이를 빌미로 공격을 개시하여 한나절 만에 부산진성이 함락되었다. 이튿날에는 2만여 명에 달하는 소서행장 휘하 부대가 동래성을 공격하여 함락시켰는데 이때 동래부사 송상현을 비롯하여 3천 명이 넘는 군민이 전사하였다. 일본 제1군은 이후 밀양, 대구, 충주 전투를 치르며 부산 상륙 20일 만인 5월 2일에 한양에 도달하였다. 加藤清正의 일본 제2군과 黒田長政의 일본 제3군, 毛利吉成의 제4군은 4월 18일 부산진에 도착하여 서로 다른 길로 북상하였다.¹³⁾

일본군에 의해 한양이 함락되자 조선 조정은 명에 구원병을 요청하였다. 명은 遼東廣寧鎮守總兵官 楊廣勳과 군사 3,500명을 조선에 파견하여 평양성 탈환을 노렸으나 실패하였고, 일본과의 전투에서 연패를 거듭하였다. 원병 파견으로 재정 압박이 심해진 명은 심유경을 내서워 일본과의 강화회담을 추진하였다. 명은 가등청정에게 사로잡힌 조선의 두 왕자 임해군과 순화군을 돌려보내고 일본군이 한강 이남으로 철수할 것을 강화교섭의 전제 조건으로 제시하였다. 반면 일본은 명에는 冊封使 파견을, 또 조선에는 왕자 송환을 사례하는 통신사를 파견하라고 요구했다. 명은 일본측의 요구를 수용하여 책봉사 파견을 결정하고 이에 대한 세 부사항을 정하기 위해 심유경을 일본으로 보냈다.¹⁴⁾ 일본을 다녀온 심유경은 책봉사의 파견만으로는 일본과의 전쟁을 끝낼 수 없다며 조선

13) 김경태, 앞의 논문, 5쪽.

14) 정은영, 『『일본왕환일기』의 통신사행문학적 위상 재고』, 『국제어문』 제67집, 국제어문학회, 2015, 118-119쪽.

조정에 통신사 파견을 요구했다.

- 본부는 두 나라를 조정하여 피차의 실정을 함께 통하게 하려고 합니다. 헤아려보면 귀국이 이 병화를 당한 뒤로 그야말로 臥薪嘗膽하는 때이니 또한 마땅히 권도로 일을 처리하여 이 일을 완결해야 할 것이고, 앞으로는 안으로 文德을 닦고 밖으로 武備를 엄히 하여 장래에 나라가 부유하고 군사가 강성하면 왕업을 일으킬 수 있을 것이니, 수치를 반드시 씻지 아니하더라도 저들이 또한 스스로 두려워할 것입니다. 이것이 왕께서 오늘날 도모하여 마음에 시원하게 여기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혹시 다른 논의가 있다 하더라도 중국 사신을 陪臣에 비교하면 경중이 분명하건만 본부가 능히 담당할 수 있는데 귀국의 배신을 담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중국에서 귀국의 어지러움을 해결하기 위해 관백을 封王하는 일을 윤택하고 이에 開國帶礪元勳 및 명망 있는 대신을 보내어 멀리 海島를 건너가게 하였습니다. 사리로 헤아려보면 관백이 배신이 동행하기를 원하지 않더라도 귀국에서 응당 배신 2~3인을 보내어 중국 사신을 따라 일본으로 건너가는 것이 또한 예이며 의리인데, 하물며 저들이 또 이러한 의사가 있는데이겠습니까. 이를 통지하기 위하여 자문을 보내니, 국왕께서는 자문 안의 사리를 查照하여 곧 배신 2員을 보내십시오. 그리하여 속히 와서 사신을 따라 바다를 건너가 관백과 면대해서 영원히 盟好를 닦아 조속히 세상을 맑게 하여 세 나라가 수년 동안의 노고를 쉬게 되면 피차가 매우 다행하겠습니다. 절대로 미움함을 고집하고 깨닫지 못함으로써 지체하고 의심하여 큰일을 그르치지 마소서.¹⁵⁾

15) 『선조실록』 70권, 28년 12월 29일(정묘), “本府調戡兩國彼此之情 俱要通達 計貴國當此遭罹之後 正臥薪嘗膽之日 亦宜權衡爲之 了結此事 嗣後內修文德 外嚴武備 將來國富兵強 王業可興 恥不必雪 彼亦自畏 非王今日之圖以爲快心事耶 倘有異議 以天使視陪臣 輕重較然 本府力能擔之 獨不能擔貴國之陪臣乎 天朝爲貴國解紛 允其封事 乃遣開國帶礪元勳及倚重大臣 遠涉海島 揆之理勢 不必關白欲煩

심유경은 명이 조선의 혼란을 수습하기 위해 책봉사 파견을 결정한 만큼, 조선도 통신사를 파견하라는 일본측 요구를 수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중국의 사신이 일본에 들어가는 만큼 조선이 마땅히 자신들을 배행해야 하지 않겠느냐며 조선의 감정적 대응이 전쟁 종식이라는 큰 일을 그르칠 수 있다고 결단을 촉구했다. 이에 조선 조정은 심유경의 接伴使로 倭營에 머물며 소서행장과도 소통하고 있었던 황신을 정사로 삼아 1596년 통신사를 파견하였다. 그러나 수길은 일본이 조선의 두 왕자를 풀어주었음에도 그에 대한 사례의 뜻을 충분히 전달하지 않는다고 불만을 드러내며 통신사와의 만남을 거부하였다. 심유경 역시 강화회담은 잘 진행되고 있으니 안심하라는 말만 거듭할 뿐, 회담 관련 정보를 통신사와 공유하지 않았다. 그래서 황신은 소서행장, 대마도주, 平調信 등을 만나 일본 내 분위기를 탐지하였고 명과 일본 간의 강화 교섭이 결렬되자 이를 서둘러 조선 조정에 전하여 전쟁에 대비하고자 하였다.

- 關白이 방자하고 난폭하여 인심을 잃었고 악한 짓을 하고도 뉘우치지 않으니, 3년이나 5년을 벗어나지 못해서 필시 세력을 보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조선에서 만약 羈縻하는 계책으로써 잘 버티어 시일을 끌어간다면, 마침내는 반드시 아무 일도 없을 것입니다.¹⁶⁾
- 상이 말씀하시기를, “清正이 장차 올 것이라고 하는데 사실인가?”라고 하시니, 황신이 아뢰기를, “清正 등이 나오는 것은 당연히 2~3월 경이 될 것이고, 또 온다고 한다면 반드시 울산이나 기장 등의 읍에 진을 치고 머무르면서 關白의 명령을 기다릴 것이라고 합니다.”라고

陪臣同行 而貴國亦應遣二陪臣 追隨天使東渡 亦禮也義也 況彼又有是意乎 擬合知會 爲此合咨前去 國王煩爲查照咨內事理 卽遣陪臣二員 作速前來 跟隨天使渡海 面與關白 永修盟好 早清海宇 庶三國數年之勞息眉 彼此幸甚 慎勿執迷不悟 以致遲疑 耽誤大事”

16) 황신, 『일본왕환일기』, 10월 10일(계유), “時羅言關白橫失人心 爲惡不悛 不出三五年 勢必難保 朝鮮若能以計羈縻 撐過日子 則終必無事矣”

하였다.¹⁷⁾

황신은 일본인들이 전쟁에 염증을 느끼고 있으며 수길에 대한 반감도 고조되고 있음을 파악했다. 그래서 수길의 권력이 오래가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다. 동시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수길이 일본 내부의 불만을 타개하기 위해 조선 재침략을 생각보다 일찍 단행할 것이라고 판단하고는 군관 趙德秀와 朴挺豪를 조선에 먼저 보내 대비책을 강구할 것을 전하였다. 이에 선조는 한강을 사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정탐꾼을 파견하여 일본군의 동향을 파악하는 한편 심유경에게 부탁하여 가등청정이 명의 관작을 받을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하라고 명하였다. 조선으로 돌아온 황신은 복명을 하며 일본군의 예상 출정 시기, 경로와 그에 따른 조선 수군의 운용 방안에 대해 선조에게 아뢰었다.

황신의 예상대로 가등청정을 선봉으로 한 일본군이 재침략을 단행하였다. 1597년 5월 수길은 전라, 충청도를 비롯하여 조선의 모든 성을 함락시켜 조선이 일본의 강화 조건에 굴복하게 만들라는 공격 명령을 내렸다. 일본군은 그 해 7월 칠천량에서 원군이 이끌던 조선 수군에 대한 대대적인 공격을 펼쳤는데 이를 기점으로 전쟁이 다시 본격화되었다.¹⁸⁾ 그러나 1598년 5월 수길의 병세가 악화되면서 일본군의 철수가 시작되었고 같은 해 8월 18일 수길이 병사하면서 7년간의 전쟁은 종료되었다. 조선과의 무역이 경제의 큰 부분을 차지했던 대마도는 일본군이 조선에서 철수한 직후인 1599년부터 사자를 파견하여 교역 재개를 요구했으며, 1600년에는 조선인 피로인 160명을 쇄환하여 조선에 돌려보냈다. 그리고 수길 사후 일본에서 정치적 입지를 공고히 하고자 노력했던 德川家康은 동아시아에서의 고립을 탈피하기 위해 대마도를 통해 강화를 요청

17) 『선조실록』 83권, 29년 12월 21일(계미), “上曰 清正將爲出來云 然乎 慎曰 清正等之出來 當在二三月 雖來必留陣蔚山機張等邑 以待關白號令云”

18) 허남린, 『정유재란을 어떻게 볼 것인가? : 전쟁의 추이와 삼국의 전략구도』, 『정유재란 1597』, 국립진주박물관, 2017, 14-16쪽.

했다.

그러나 조선의 입장에서는 일본이 강화 협상 직후 정유재란을 일으킨 전적이 있었기에 선불리 그들의 요청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선조는 2품 이상의 관원들에게 일본의 강화 요청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의논하게 했는데, 대의에 따라 원수 일본과의 강화는 있을 수 없다는 의견과 진정한 복수는 왜란으로 입은 피해를 복구하고서도 가능하니 羈縻하는 방책으로 일본의 요구를 받아들여자는 의견이 팽팽히 맞섰다. 그런데 남해안에서 對馬島民에 의한 영해침범사건이 연이어 일어나자 일본의 再侵을 우려하며 민심이 동요하였고 後金の 성장은 조선의 안보에 위협이 되고 있었다. 일본의 강화 제의를 거절할 수 없었던 선조는 우선 일본의 진의가 무엇인지 파악하기 위해 1601년 奎繼信과 孫文彥을 대마도에 탐적사로 파견하였고, 1604년에는 四溟堂을 탐적사로 파견¹⁹⁾하여 가강의 강화 의지를 확인하였다. 그리고 조선 조정은 1606년 가강이 먼저 강화를 요청하는 서계를 조선에 보내고 임진왜란 때 宣陵과 靖陵을 범한 왜적을 압송하며 피로인을 쇄환할 것을 국교 재개의 전제 조건으로 제시하였다.

- 처음 倭酋 源家康이 국정을 독단하고 한결같이 풍신수길의 소행과는 반대로 하여 계속 피로인의 刷送을 허락하는가 하면, 이어 差倭 굴지정을 보내 부산에 도착한 뒤 통신사의 회복을 요구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상 가강의 國書가 없었으므로 조정에서는 犯陵한 왜인을 잡아 보내고 가강의 국서도 가져와야 화의를 의논할 수 있다고 하고 먼저 사람에게 보내 이를 알렸다. 이에 가강이 비로소 국서를 보냈는데, 그 내용에, “전하가 일찍 사신을 파견하여 바다를 건너오게 허락하시어 이곳 60여 주의 인민으로 하여금 和好的 실상을 알게 하신다면 피차간에 크게 다행이겠습니다.”라고 하였다. 또 대마도 왜인 중 사형

19) 하우봉, 『16세기말 동아시아 국제전쟁』, 『동아시아의 역사 II』, 동북아역사재단, 2011, 240-242쪽.

에 처할 죄인이었던 麻古沙九·麻多化之 두 사람을 犯陵倭라고 속여 국서와 함께 보내왔다.²⁰⁾

- 군주는 백성에게 부모의 도리가 있다. 백성들이 오랑캐에게 잡혀가 禮義之邦의 백성들로서 장차 오랑캐 나라의 백성이 되게 되었으니 슬프지 않을 수 있겠는가. 전날 回答使에게 그곳에 이르러서 刷還에 관한 일을 스스로 주선했어 보도록 啓下하였으나, 이 말은 허술한 듯하여 그가 능히 刷還해 올 것인지를 期必하지 못하겠다. 또 회답사를 보내면서 마땅한 명칭이 없는 것도 혐의스럽다. 이제 위에서 보내거나 혹 禮曹에게 글을 보내게 하여 곧장 의리에 의거, 우리나라의 포로를 모두 刷還시켜 두 나라의 우호를 다지게 하라고 하여 한 번 그들의 뜻을 떠보는 것이 마땅하다. 사신의 칭호를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을 刷還하는 것으로 명분을 삼을 경우 그 호칭을 回答刷還使라고 하는 것도 한 계책일 것이다.²¹⁾

그로부터 4달 뒤 가장 명의의 서계와 범릉왜 마고사구와 마다화지가 한양에 도착하였다. 조선 조정은 그 심문 과정에서 범릉왜로 잡혀온 대마도인들이 대마도주에게 속아 압송된 가짜 범인임을 알았다. 그러나 선조는 대마도인이라면 그 누구든 조선의 적이 아니겠냐며 두 사람을 저지에서 효수하고 사건을 일단락하였다. 선조는 備忘記를 내려 임진왜란

20) 『선조수정실록』 40권, 선조 39년 11월 1일(병인), “倭酋源家康擅主國政 一反秀吉所爲 連許刷還被擄人 仍送差倭橘智正 到釜山求復通信使 而實無家康國書 朝廷以爲 縛送犯陵倭 且致家康書 乃可議和 先遣人諭之 於是家康始通書曰 殿下早許送使過海 使六十餘州人民 知和好之實 則彼此大幸又以馬島 倭有罪當死者 麻古沙九 麻多化之二口 詐稱犯陵之倭 隨國書出送”

21) 『선조실록』 207권, 40년 1월 4일(무진), “君之於民 有父母之道 其民陷於虜庭 忍令禮義之民 將爲蠻貊之民 可不爲悲乎 前日令回答使 到彼自爲周旋刷還事 啓下矣 此似歇後 未可必其能刷出否也 且回答使之遣 亦嫌無名 今宜或自上貽書 或令禮曹致書 直據義理 令盡刷我國被擄人 以申兩國之好 一以探試其意 使臣以刷還被擄爲其名號則以回答刷還使爲稱 此一謀也”

때 잡혀간 조선인을 본국으로 데려오는 것이 군왕의 책무임을 밝히며 피로인 쇄환을 명분으로 ‘回答兼刷還使’라는 명칭으로 조선후기 첫 통신사를 파견하였다. 이렇듯 임진왜란의 발발 전, 그리고 전쟁 중 강화 교섭기, 또 종전 이후에도 조선에서 일본으로 통신사가 파견되었다. 이 시기 통신사가 남긴 기록에는 임진왜란을 둘러싸고 벌어졌던 동아시아 삼국의 정치·외교적 상황이 고스란히 기록되어 있다.

3. 국내 노정에서 느낀 전쟁의 상흔, 그리고 부산

1) 흔적: 아물지 않은 전쟁의 고통

통신사 파견은 조선이 처한 대내외적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하지만 일본에 당한 치욕과 그로 인한 적개심은 정치·외교적 판단과는 별개의 감정이었다. 이러한 점은 선조의 명의로 德川家康에게 보낸 국서에도 잘 드러나 있다.

- 임진년의 변란은, 귀국이 까닭 없이 군대를 일으켜 극히 참혹한 禍亂을 만들고 심지어 先王의 陵墓에까지 욕이 미쳤으므로, 우리나라 군신의 마음이 아프고 뼈가 저리어, 의리에 귀국과는 한 하늘 밑에 살지 못하게 되었었던 것입니다. 6, 7년 동안 대마도가 비록 강화할 것을 청해오기는 하였으나, 실로 우리나라가 수치스럽게 여겼던 바입니다. 이제 귀국이 옛일을 혁신하여 위문편지를 먼저 보내와 ‘전대의 잘못을 고쳤다.’ 하여 성의를 보이니, 참으로 이 말과 같다면 어찌 두 나라 生靈의 복이 아니겠습니까? 이에 사신을 보내어, 보내 온 후의에 답하는 것입니다.²²⁾

22) 경섭, 『해사록』, 정월 12일(병자), “壬辰之變 無故動兵 構禍極慘 而至及先王丘墓 敝邦君臣 痛心切骨 義不與貴國 共戴一天 六七年來 馬島雖以和事爲請 實是敝邦

조선 조정은 일본의 국교 재개를 위해 통신사를 파견하면서도 양국 간의 관계가 악화된 모든 책임이 일본에 있음을 명확히 밝혔다. 아무런 명분 없이 참혹한 전쟁을 일으켰을 뿐만 아니라 왕의 능을 파헤쳐 모욕한 일본을 조선의 신민은 ‘불구대천의 원수’로 생각하고 있으며, 일본과의 강화를 춘추대의에 어긋난, 수치스러운 것으로 여긴다는 점도 분명히 하였다. 또한 덕천가강이 먼저 국서를 보내 화의를 청해왔고 그가 풍신수길과는 다른 인물이기에 조선이 이를 수용하게 되었다는 점도 강조하였다. 피로인 쇄환을 위해 통신사 파견을 결정했다는 선조의 비망기가 조선의 신민에게 국교 재개의 필요성을 피력했던 것이라면 일본에 보내는 국서는 양국의 국교 재개가 일본의 요청에 의해 성사된 것임을 밝혀 향후 외교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있어 우위를 선점하는데 그 목적이 있었다. 무엇보다 조선의 국서에는 일본과의 국교 재개가 조선의 백성과 국왕 스스로에게 명분을 제시해야 할 만큼 힘든 결정이었음이 드러나 있다.

그런데 조선 후기 통신사행록에도 일본과의 교린을 둘러싼 복잡한 심경이 기록되어 있다. 통신사 역시 전쟁이 끝난 지 10년도 되지 않아 적국 일본과 국교를 재개한다는 것이 春秋大義에 어긋난 일임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南邊의 안정을 도모하고 일본의 재침략 가능성을 탐지하기 위해서는 봉명사신으로서의 임무를 다해야 한다며 이를 상쇄시키려 했다.

감도는 먼 길에 말이 날듯이 달리고	原隰紆回快馬飛
푸른 휘장에 바람 일고 해가 기우네	風生翠憲澹斜暉
행인은 뽀얀 수레 먼지 달아나며 피하고	行人走避車塵合
높이 펼쳐진 장막 삶은 고기도 좋구나	供帳高張鼎肉肥
임금의 두터운 은혜 물처럼 몸에 배니	霄漢渥恩沾似水

所恥 今者貴國 革舊而新 問札先及 乃謂改前代非者 致款至此 苟如斯說 豈非兩國 生靈之福也 茲馳使价 庸答來意”

부상으로의 행역 좋은 듯 보이네	扶桑行役視如襪
금절이 훨훨 매화 밖에 펼쳐이니	翩翩金節梅花外
위타를 봉하지 않고선 내 아니 돌아오리	不拜尉佗吾不歸 ²³⁾

임금을 뵈고 나온 통신사행원들은 일본으로 떠나기 싫은 마음을 ‘더딘 걸음’이나 ‘서성이는 걸음’으로 나타내고는 하였다. 하지만 1643년 계미 사행의 부사 조경은 일본으로의 사행이 좋은 듯도 하다며 그 이유로 임금의 두터운 은혜를 들었다. 그러면서 陸賈가 南越의 왕 위타를 설복하여 월을 漢의 속국으로 삼았던 것처럼 자신 역시 일본을 복속시키겠다는 다짐을 하였다. 이처럼 조선후기 통신사는 자신들의 상황을 朱子가 통분함을 잊고 오랑캐와 화친했던 방책과 견주거나 스스로를 육가나 張騫에 비유하며 오랑캐 일본을 회유하여 교화시키겠다는 의지를 드러내었다.

하지만 통신사행원들의 국내 노정은 평탄하지 않았다. 전후 복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떠나는 것이라 사행원들은 제대로 된 지공도 받을 수 없었으며, 편안하게 묵을 숙소도 제공받지 못했다.

- 서울에서 여기까지 나흘 동안의 길을 모두 점심을 먹지 않고 연일 역참을 지나는데, 飢困이 뼈에 사무쳐 괴로웠다.²⁴⁾
- 大灘에 이르니 날이 어두워져 배를 묶어 놓고 저녁밥을 차려 먹은 뒤에, 촌가에 들어가 묵으려 하니 역병이 있다고 했다. 달빛을 타고 대탄을 거슬러 올라가서 밤에 정덕여의 田庄에 들었는데, 오래된 집이 헐고 무너져 있었다.²⁵⁾

23) 조경, 『동사록』, <社倉道中>

24) 경섭, 『해사록』, 정월 16일(경진), “自京城至此四日程 並不設中火 連日過站 飢困 遍骨 苦哉”

25) 김세렴, 『해사록』, 8월 13일(갑신), “至大灘日昏 維舟設夕飯 欲入宿村舍 聞有疫患 乘月泝大灘 夜投鄭德餘庄 舊屋頽廢”

1607년 정미사행의 부사 경섭은 사행에서 느낀 현실적인 문제를 사행록에 고스란히 기록하였다. 경섭은 1월 13일에 서울을 떠나 4일 만에 충주 용안역에 당도하였는데, 그 나흘 동안 점심도 먹지 못한 채 이동을 하느라 배고픔이 뼈에 사무칠 정도로 괴로웠다고 표현했다. 이뿐만이 아니라 예천에서는 좁고 누추한 촌집에서 묵었는데 그런 숙소마저도 부족하여 정사와 한 방에서 지내야만 했다. 1617년 정사사행의 부사 박재는 부산으로 가는 길에 경기도 광주에 있는 선영을 들렀는데 자신은 물론 배종하는 군관까지 제대로 된 지공을 받지 못해 집안사람에게 쌀을 얻어 밥을 해먹을 수밖에 없었다. 이런 상황은 병자사행 때에도 크게 나아지지 않아 여전히 민가를 숙소로 사용해야 했으며 심지어 경기도 대탄에서는 천연두가 창궐하여 촌가에 머무는 것도 여의치 않아 급하게 인근의 허물어진 농장에서 하룻밤을 보내야만 했다.

그러나 이러한 굶주림과 육체적 고통보다 통신사를 괴롭힌 건 전란의 흔적을 마주할 때였다. 부산으로 내려가는 길은 곧 일본군의 북상 경로와 닿아있었으므로 통신사의 국내노정에는 전쟁의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 일본에 대한 분노와 적개심을 오랑개 일본에 대한 교화로 치환하려고 했던 통신사의 다짐은 탄금대 전투와 관련 있는 충주·조령을 지나며 무너졌다.

낙숫물이 줄줄 흘러 개울을 이루고	簷鈴滴歷亂成流
먼 안개 자욱하고 날이 개지 않는구나	遠靄微茫苦未收
무심한 비야 왕사가 급한 줄 알리오	雨意豈知王事急
인정으로 고향이라 머무르라 하는게지	人情亦爲故鄉留
탄금대의 물빛은 말갭게 불어나고	琴臺水色晴初漲
월악산의 봄빛은 파랗게 비쳐나네	月岳春光翠欲浮
마음 가득 이제 사신된 것 부끄러워라	多情自慚今杖節
십년 전엔 포의로 놀았던 곳이라네	十年曾是布衣遊 ²⁶⁾

26) 황호, 『동사록』, <遇雨留忠州>

탄금대라 흐르는 물 한을 남기고	遺恨彈琴水
야마대라 깊은 원수 어찌 잊으랴	深讐野馬臺
산하는 오히려 기세가 웅장하건만	山河猶壯氣
여전히 죽은 이들의 슬픔은 남았네	猿鶴尙餘哀
지나가는 나그네는 비통함을 더하는데	過客增悲慨
외로운 배는 홀로 물결을 거스르네	孤舟獨泝洄
섞여 놓고 쓸개 씹은 백년의 쓰라림	百年薪膽痛
눈물을 가리우며 동래로 내려가네	掩淚下東萊 ²⁷⁾

탄금대는 임진왜란 초기 최대의 격전지이자 都巡邊使 申砬이 이끄는 조선의 주력군 8,000명이 일본군에게 패하여 몰살된 곳²⁸⁾이었다. 4월 28일 탄금대 전투에서 이긴 일본군은 불과 5일만에 한양에 입성할 수 있었다. 충주에 도착한 조선후기 통신사는 자연스럽게 탄금대와 신립을 떠올릴 수밖에 없었고 전몰자에 대한 애도나 탄금대 전투에 대한 안타까움을 시로 표현했다. 병자사행의 종사관 황호는 충주에 내리는 비가 사행의 바쁜 길을 늦추는 것은 자신을 고향에 더 머물게 하려는 인정이라 하였으나 곧 탄금대를 보면서도 사신된 것이 부끄럽다고 적고 있다. 비록 왕명을 수행하러 일본으로 떠나는 길이지만 임진왜란을 떠올리면 원수 일본과 교린을 위해 떠나는 발걸음이 무거운, 복잡한 심정을 드러낸 것이다.

임진왜란이 끝난 지 150년이 지난 후에 파견된 계미사행의 서기 김인겸 역시 탄금대에 남아있는 죽은 이들의 한과 슬픔이 비통함을 자아낸 다면서 와신상담의 마음으로 사행을 떠난다고 표현하였다. 특히 통신사행원들은 탄금대에서 배수진을 쳤던 신립의 전략에 대해 아쉬움을 표현했는데, 이는 조령을 지날 때에도 동일했다. 1747년 정묘사행의 종사관 조명채는 사신이 되어 남쪽으로 내려가며 조령을 보고는 신립이 그 힘

27) 조엄, 『해사일기』, 『수창록』, <過彈琴臺>

28) 이상훈, 『신립의 작전지역 선정과 탄금대 전투』, 『군사』 제87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13, 275쪽.

난함을 이용하여 강력한 방어선을 구축하지 못한 사실에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부산에 가까워질수록 전쟁으로 인한 상흔은 더 뚜렷해졌고, 이에 따라 통신사행원들은 격한 감정을 토로하기도 하였다.

- 성문을 나서서 甌山을 바라보니, 높이가 수십 길인데 포구에 우뚝 솟아 있다. 城壘가 아직 남아 있는데, 큰 돌로 가로 세로 구불구불하게 쌓은 것이 우리나라의 성 쌓는 제도와 같지 않으니, 바로 중국의 經理 楊鎬가 일본의 가등청정을 공격하던 곳이다. 그 당시에 바야호로 都督 麻貴가 기마병으로 앞서 달리고, 浙江의 보병이 또 먼저 오르기를 청하여, 벽력과 바람같이 공격하니 감히 버티지 못하였다. 여러 왜적의 연달은 진영을 짓밟은 뒤에 또 진격하여 外寨를 빼앗으니, 가등청정이 묶이는 것은 한 번 북을 칠 사이에 달려 있었다. 가등청정이 金帛을 성 밖으로 마구 던지니, 여러 군사들이 다투어 갖느라고 싸움에 힘쓰지 않으니, 양 경리가 교만한 빛을 띠며 말하기를, “여러 군사가 매우 굶주렸으니, 내일 무찌르는 것이 좋겠다.”하고, 드디어 징을 울려 군사를 거두니, 적이 밤새워 수비를 준비하였다. 새벽이 되어 진격하여 공격하니, 포환이 비 오듯 하여 절강의 군사가 2천이나 죽었고, 경리가 여러 가지 계책으로 공격하였으나 빼앗지 못하였다. 중국 군사들이 산 왼쪽에 진을 치고 있다가, 경리가 탄핵을 받아서 돌아갔다. 아! 우리나라가 오랑캐를 면한 것은 모두 경리의 힘이었으나, 징을 울려 나아가지 않아 드디어 잡을 수 있었던 왜로 하여금 다시 해독을 부리게 하였다. 이는 또한 피가 적었다고 하겠지만, 하늘이 눈을 내리서 성 안으로 하여금 곤란하지 않을 수 있게 한 것은 또한 어떻게 된 일인가?²⁹⁾

29) 김세렴, 『해사록』, 9월 4일(을사), “出城門 望見甌山 高數十丈 斗起浦口 城壘尙存 築以巨石 縱橫曲復 不似我國城制 卽楊經理鎬 擊清正處也 方麻都督 以馬兵先

병자사행의 부사 김세렴은 울산에서 일본군이 쌓은 왜성을 보며 울산성 전투를 떠올렸다. 1597년 12월 양호와 마귀가 이끄는 명나라 군사 4만 명과 권을 휘하의 군사 1만 명이 연합하여 가등청정이 주둔하고 있던 울산성을 공격하였다. 명군은 성의 삼면을 포위하고 화포와 화전을 쏘며 총공세에 나섰다. 군량과 물의 공급을 차단하여 일본군을 극한의 상황으로 몰아갔다. 그러나 갑자기 내린 눈비로 명의 화포 공격이 소용이 없어진 데다 부산포를 출발한 일본의 지원군이 도착하면서 상황은 급변하였다. 양호는 일본의 지원군이 태화강에 이르자 퇴각 명령을 내렸고 조·명 연합군의 울산성 공격은 실패로 끝났다.³⁰⁾ 김세렴은 조·명 연합군이 승기를 잡았음에도 이를 이어나가지 못하고 퇴각한 것에 안타까움을 표현했다. 특히 이들의 패배가 단순히 전략 부족 때문만이 아니라 날씨가 큰 원인으로 작용했는데, 김세렴은 오랑캐 일본에게 유리한 눈비를 내린 하늘의 뜻은 무엇인지 한탄하였다.

부산에 도착한 사행원들은 임진왜란의 참상을 더 극명하게 볼 수 있었다. 우선 통신사가 부산에 체류하는 기간이 짧으면 보름에서 길면 50일에 달해 다른 경유 지역에 비해 많은 곳을 둘러볼 수 있었다. 또 부산은 7년의 전쟁 기간 내내 일본군이 주둔하고 있었기 때문에 전쟁의 흔적이 많이 남아 있었기 때문이다.

쓸쓸하게 무너진 성이 바로 동래성이니
그 해를 생각하면 마음 편하지 않네

蕭條殘郭是萊城
憶着當年意未平

驅 浙江步軍 又請先登 若霹靂風霆 莫敢支吾 諸倭之連營者 既已蹂躪 又進拔外寨 清正就縛 只在一鼓間矣 清正亂投金帛于城外 諸軍爭取不力戰 經理有驕色曰 諸軍飢甚 明日可鑿糟之 遂鳴金收軍 賊達夜設守備 及曉進攻 砲丸如雨 浙兵死者二千 經理百計攻之不得拔 會天大雨雪 士馬皆凍 立城中之水 得不困 海上諸軍四集 王師左次 經理被參而還 噫東土之免爲卉服 皆經理力也 鳴金不進 遂使垂縛之禿 再肆其毒 亦可謂寡謀 天之雨雪 使城中得不困者 亦何哉”

30) 울산성 전투에 대해서는 나성린, 『울산성 전투와 울산왜성』, 『1598 정유재란』, 국립진주박물관, 2017, 276-284쪽 참조.

버려진 성가퀴 수리 않은 채 시든 풀에 묻혀 있고	廢堞不修衰草合
황량한 터 주인 없이 석양 속에 행하구나	荒墟無主夕陽明
청산은 여전히 서글픈 기색 띠고 있고	靑山尙臺淒涼色
흐르는 물 오래도록 오열을 삼키고 있네	流水長含嗚咽聲
의로운 혼백 틀림없이 남은 울분 있을 텐데	義魄想應餘憤在
오히려 오늘 바다 동쪽으로 가야 하다니	却慚今日海東行 ³¹⁾

1624년 갑자사행의 종사관 신계영은 허물어진 성과 황무지로 변한 동래 지역을 보며 임진왜란의 흔적을 떠올릴 수 있었다. 전쟁이 끝난 지 25년이 지난 시점이었지만 여전히 허물어져 있는 동래성은 전쟁의 고통이 아직도 끝나지 않았음을 보여주고 있었다. 신계영은 동래의 산도 슬픈 기색을 띠고 있고 강물도 오열한다고 했지만 이는 폐허가 된 동래를 본 신계영의 마음을 대변하는 것이었다. 특히 신계영은 조선을 지키다 사라져간 이들의 울분이 아직도 남아있는데 그런 부산을 출발하여 적국 일본으로 떠나야 한다는 것에 참담함을 느꼈다.

이런 감정은 부산에 들어와 왜성을 보면서도 계속되었다. 일본군은 명과 일본이 강화회담을 추진하자 장기간 주둔 목적으로 여러 개의 왜성은 쌓았다. 부산의 왜성은 일본 병력을 충원하고 물자를 보급·관리하는 병참기지의 역할을 하였다. 종전 후 원래의 부산진성이 일본군에 의해 훼손되면서 조선군은 잔존했던 子城 일대에 부산포진을 주둔시키고 부산진성으로 쓰고 있었다.³²⁾ 1655년 을미사행의 종사관 남용익은 부산에 남아있는 왜성을 보며 임진왜란을 떠올렸다.

저 일본성을 바라보니	緬彼日本城
일찍이 운세가 좋지 않았네	南風曾不競

31) 신계영, 『선석유고』, <東萊有感甲子奉使日本>

32) 부산 왜성에 대해서는 김강식, 『조선시대 해항도시 부산의 모습—군항과 해항』, 선인, 2018, 121-123쪽; 송혜영·서치상, 『부산진성의 공간구성과 변화과정 연구』, 『건축역사연구』 28권 4호, 한국건축역사학회, 2019, 37-38쪽 참조.

두 능이 아직도 부끄러움을 머금었으니	二陵尙含羞
임진왜란의 패악함을 어찌 말하랴	忍說龍蛇橫
죄악이 거듭 쌓여 스스로 멸망으로 나아갔으니	罪貫自就滅
원씨(가강)가 평씨(수길)를 무찔렀네	源氏剗平姓
조정에서 權道의 계책 펼쳐	廟算出權宜
십 년에 한 번씩 통신사가 가네	十年修一聘
탕임금이 葛伯을 먹여 주는 것이지	自是湯餉葛
周가 쫓과 鄭에 의지했던 관계가 아니라네 (후략)	非關晉依鄭 ³³⁾

남용익은 왜성을 보며 ‘이릉’을 떠올렸다. 이릉은 성종의 능인 宣陵과 중종의 능인 靖陵으로 임진왜란 때 일본군에 의해 파헤쳐진 곳이었다. 남용익은 이릉을 통해 왕릉을 파헤친 일본군의 패악을 드러내는 동시에 조선 스스로가 아직도 그 수치스러움을 만회하지 못했음을 언급하였다. 그리고 그 치욕을 씻지도 못했음에도 지금 일본과의 교린을 위해 사신으로 떠나야 하는 자신의 상황에 부끄러움을 느꼈다. 하지만 조선이 교린을 하는 대상은 적 수길을 무찌른 가강이라는 점, 통신사는 조선과 일본이 대등한 관계를 맺고자 가는 것이 아니라 탕 임금이 오랑캐를 교화하고 시혜를 베푸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표현하며 사신 파견의 정당성을 피력하였다. 즉 통신사의 파견이 오랑캐 일본에게 머리를 숙이는 일이 아님을 강조한 것이다.

이러한 생각은 海神祭의 祭文에도 잘 드러나 있다. 통신사는 일본으로 떠나기에 앞서 영가대에서 해신제를 거행하였다. 해로로의 이동은 조선 조정에서 통신사 파견을 거절한 명분으로 삼을 만큼 익숙하지 않은 길이었으며 위험한 노정이었다. 그런 두려움을 지닌 통신사해원들은 해신에 대한 제의를 베풀어 안전한 항해를 보장받고자 하였다. 바다에서 맞닥뜨릴 지도 모를 위험 요소의 제거를 해신에게 희구함으로써 심리적인 안정³⁴⁾을 찾았다.

33) 남용익, 『부상록』, 4월 21일, <萊館書懷得長篇四十韻呈兩使兼示讀祝李文哉>

34) 한태문(2005), 앞의 논문, 13-14쪽.

- 우리 임금의 명을 받아 節을 들고 동으로 멀리 일본에 갑니다. 바닷길이 3천리인데 마련한 배가 6척이고, 무리가 수백 명입니다. 우리가 감히 원수를 잊은 것이 아니라 일은 經과 權이 있어, 廟堂의 계획을 돕는 것입니다. 말이 忠信하고, 행동이 篤敬하면 蠻貊의 나라에도 다닐 수 있는 것이니 감히 그 공부에 힘을 얻었다고 하겠습니까. 사방에 사신으로 가서 임금의 명을 욕되지 않게 해야 배운 바를 저버리지 않게 될 것입니다.³⁵⁾

1617년 정사사행의 종사관 이경직은 『부상록』에 당시의 제문을 수록하였다. 그런데 제문에는 사행원들의 안전을 기원하는 내용 이외에 통신사 파견의 명분을 언급하고 있어 흥미롭다. 제문에서 통신사행원들은 자신들의 일본행이 원수를 잊은 것이 아니라 常經과 權道에 따른 것이며 임금과 조정의 계획을 돕는 일이라고 하였다. 이는 통분함을 잠시 잊고 내일을 도모하는 방편의 하나로 통신사를 파견한다는 조선 조정의 입장과 닮아있었다. 또한 통신사가 일찍이 배우고 익혔던 禮에 따라 사신 임무를 수행한다면 임금의 德을 오랑캐에게도 누리게 할 수 있다며 통신사 파견의 목적이 일본 교화에 있음을 드러내었다. 하지만 이는 대내외적인 상황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선택한 정치적 계책일 뿐, 사행원 개개인이 느끼는 적개심과는 별개의 문제였다. 불명사신으로서 마음을 다잡고 사행을 떠난 이경직이었지만 일본의 경제력을 보고는 하늘을 원망하였고, 秀忠에게 국서를 전달한 후에는 원수에게 무릎을 꿇으니 마음과 쓸개가 찢어진다고 탄식하였다.

일본에서 돌아와 부산에 도착한 통신사는 전쟁의 상처가 아물지 않았다는 점을 절감하였다.

35) 이경직, 『부상록』, 7월 5일(정묘), “受我后之命 仗節而東 遙指日域也 海路寧三千 治船六艘 徒衆數百也 匪敢我忘 謹事有經權 資廟略也 忠信篤敬 蠻貊可行 何敢自謂得力也 使於四方 不辱君命 庶不負於所學也”

- 마부와 말이 준비되지 않아 즉시 길에 오르지 못하였다. 왜인 橋智正 이 絶影島에 왔는데, 옛날 관사는 철쇄되고 초가집이 보잘 것 없으며, 지공도 整齊하지 않으므로, 즉시 육지에 내려오지 않고 크게 성내며 돌아가려 하였다. 그래서 두 당상 역관을 시켜 쌀섬을 마련하여 보내 주고 위로하게 하였다.³⁶⁾
- 부산에서 발행할 때에 쇄환인 등이 서로 이끌고 따라오며 말 앞에서 통곡하였다. 아마 배 안에서는 주방에서 먹을 것을 주었는데, 부산에 와서는 의뢰할 곳이 없고, 고향으로 가고자 해도 또 길을 알지 못하여 서서이리라. 이 때문에 울부짖으며 따라오니, 정경이 지극히 가련하였다. 행중의 나머지 양식을 덜어내어 각기 5일간 양식을 주어 보내고, 그 살던 고을에 關文을 써서 각기 그 사람에게 부쳤다.³⁷⁾

임진왜란 후 부산포에 있던 왜관은 조선의 군영이 들어서 있어 군사적 이유로 사용할 수 없었다. 아울러 민가 가까이에 왜관을 두는 것이 옳지 않다 여긴 조선 조정은 영도에 왜관을 설치했다. 그러나 영도의 왜관은 보잘 것 없었고 지공의 질도 좋지 않아 정미사행을 배종한 대마도인들이 불만을 제기하였다. 이에 1607년 사행의 삼사는 이들을 달래기 위해 당상역관을 보내야만 했다. 일본의 경제력을 직접 보고 융숭한 대접을 받았던 통신사로서는 부산으로 돌아와서 맞는 상반된 상황이 당혹스러울 뿐만 아니라 전쟁 이후의 조선이 어떤 상황에 처해있는 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었다. 더군다나 일본에서 쇄환하여 데리고 온 피로인에 대한 처우는 더 열악해 통신사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 통신사 파견의 명분이 피로인 쇄환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조정에서는 조선으로 돌아온 피

36) 경섭, 『해사록』, 7월 4일(갑오), “人馬不齊 未即登途 橋倭到泊於絶影島 則舊館撤毀 草屋齟齬 支供亦不整齊 不即下陸 大怒欲爲回去 令兩堂譯 謀送米石而慰之”

37) 강홍중, 『동사록』, 3월 7일(을묘), “自釜山發行時刷還人等 相率追來 慟哭於馬前 蓋船中則自行廚供饋 而及到釜山 無所依賴 欲尋故鄉 又不知路 以此號泣追來 情事極可憐也 除出行中用餘 各給五日糧而送之 各其所居處 并作關文 各付其人”

로인을 어떻게 대우하고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기본적인 방안마저 마련하지 않았다. 통신사가 그들에게 해줄 수 있는 일이라고는 사행단의 양식을 덜어 나누어주고 관문을 써주는 것밖에 없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통곡하는 피로인의 모습, 인마가 제대로 준비되지 못해 한양으로 떠나지 못하는 자신들의 상황은 임진왜란이 남긴 고통이 전쟁이 끝난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었다.

통신사행원들은 부산으로 내려오는 국내 노정 중에, 또 부산 체류기간 동안 조선 곳곳에 남아있던 임진왜란의 흔적을 직접 보았고 전쟁으로 야기된 경제적 열악함을 몸소 겪었다. 그러한 경험은 일본군이 퇴각하는 것에서 전쟁이 끝나지 않았음을, 또 수십 년이 지난 시점까지 그 상처가 아물지 않았음을 깨닫게 하였다. 조선후기 통신사행록에는 임진왜란의 흔적이 남아있는 한 전쟁과 그로 인한 고통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는 점이 뚜렷하게 기록되어 있다.

2) 기억: 총절과 再造之恩의 내면화

조선과 일본의 외교 관계가 안정됨에 따라 조선후기 통신사 역시 관백 襲職과 若君 탄생의 하례사절이자 문화사절로 그 성격이 변모되었다. 또한 전후 복구 작업이 진행되면서 사행 준비 미비로 인한 통신사의 고통은 사라졌다. 그러나 임진왜란을 기억하려는 노력은 계속되었다.

- 상이 崇賢門에 납시어 통신사로 가는 세 사신을 입시하도록 하니, 정사 조엄·부사 이인배·종사관 김상익이 차례로 앞에 나아갔다. 상이 친히 ‘二陵松柏’이란 글귀를 외우면서 목이 메고 눈물을 머금어 감개하는 뜻을 나타내시며 친히 ‘好往好來’라는 네 글자를 써서 세 사신에게 각각 주시며 사신의 마음을 위로해 주셨다.³⁸⁾

38) 조엄, 『해사일기』, 8월 3일(정해), “上御崇賢門 命通信三使臣入侍 正使臣趙職副使臣李仁培從事官臣金相翊 以次進前 上親誦二陵松柏之句 嗚咽含涕 以寓感慨之

1763년 계미사행의 삼사를 부른 영조는 친히 ‘二陵松柏’이란 글귀를 외우고 ‘好往好來’를 직접 써서 주었다. 정사 조엄은 영조의 이렇듯 언급을 선대를 생각하는 임금의 효성과 신하를 걱정하는 마음이라 보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임진왜란의 참담함과 치욕을 기억하라는 당부의 말이라고 할 수 있다. 전별연을 위해 찾은 關王廟 역시 통신사행원으로 하여금 임진왜란을 떠올리게 만들었다.

- 평명에 밥을 재촉해 먹고 南關王廟에 들어가니 솥인 이명환이 와서 기다리고 있었다. 잠시 후 月沙 相公과 순천의 원 김지남, 令公이 연달아 이르렀다.³⁹⁾
- 궐에서 물러나와 남관왕묘에 가서 옷을 갈아입었는데, 몇 명의 친구들이 송별하러 왔고 영의정 또한 뒤따라 도착했다.⁴⁰⁾
- 아침에 한강을 건너니, 太常寺의 하인 몇 사람이 미리 와 있었다. 세 사신의 행차가 일제히 성의 남쪽 관왕묘에 도착하여 흥단령으로 갈아입고 차례로 말을 타고 서울에 들어가서 복명하였다.⁴¹⁾

1617년 정사사행의 삼사와 일행 원역들은 임금께 사조하고 재상들이 열어준 전별연에 참석하기 위해 남관왕묘를 방문하였다. 또한 1624년 갑자사행의 부사 강홍중은 일본에서 돌아온 사행원들이 임금께 복명하기에 앞서 관왕묘에 들러 의복을 바꿔 입었다고 기록하였다. 관왕묘는 통신사에 대한 송별 장소이자 관북에서 평북, 혹은 평북에서 관북으로 換服하는 곳으로 통신사의 출·입국과 관련된 장소⁴²⁾로 볼 수 있다. 또한

意 親書好往好來四字 各給三使 以慰行人之心”

39) 강홍중, 『동사록』 8월 21일, “平明促食 入南關王廟 李舍人明漢來待 俄而月沙相公及金順天止男令公繼至”

40) 임수간, 『동사일기』 5월 15일, “退出 往南關王廟更衣 親舊若而人來送 領台亦追到矣”

41) 신유환, 『해유록』 1월 24일, “朝渡漢江 太常僉從數人 已來候 三使行齊到城南關王廟 改着紅團領 以次乘馬入京復命”

병자호란 때에는 두 개의 관왕묘가 淸 태종과 군사들이 머물렀던 핵심 병영으로 사용되면서 임병양란의 상흔을 내포하고 있는 공간이자, 오랑캐에 대한 치욕을 상기하는 장소로 변모하였다. 그래서 병자사행 이후에는 한동안 관왕묘가 전별 장소로 쓰이지 않았다.

그런데 원래 관왕묘는 임진왜란을 돕기 위해 조선에 왔던 명나라 장수들에 의해 세워졌다. 명의 장수와 군사들은 왜란 때 명군이 평양, 해주, 또 삼남에서의 싸움에서 이긴 것은 관우가 도왔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여 관왕묘를 설치하였다. 또 명의 神宗이 칙사 萬世德을 통해 관왕묘를 세우라는 칙령을 내리고 금 4천 냡을 자금으로 보내기도 하였다. 이에 조선 조정에서는 경리도감 당상 윤근수의 건의에 따라 병조 주관으로 동대문 밖 영도교 근처에 동관왕묘를 건립했다. 그러므로 통신사에게 관왕묘는 단순히 전별연이나 환복을 위한 곳이 아니라, 조선을 돕기 위해 명군을 보냈던 신종이 건립했다는 점에서 再造之恩을 부각시키는 공간이라고 볼 수 있다.

그래서 1682년 임술사행부터는 통신사에 대한 전별연이 관왕묘에서 다시 베풀어졌다. 숙종이 동관왕묘 방문 후 관우의 忠義를 숭상하라는 비망기를 내리고 직접 관왕묘를 찾아 致祭하면서 관왕묘의 위상이 높아졌다. 숙종의 이러한 행보는 임진왜란 때 지원군을 보내 준 명 신종을 추모하는 大報壇을 설치하여 再造之恩을 강조했던 일련의 정책들과 연결되는 조치였다. 더하여 군왕에 대한 충성을 강조하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었다.⁴³⁾ 관왕묘가 임진왜란을 상기시키는 공간, 충의를 대표하는 공간으로 기억되면서 통신사의 관왕묘 방문은 봉명사신의 임무를 자각하게 만들었다.

이렇듯 국왕 혹은 국가적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임진왜란 관련 追認은

42) 장장식, 『서울의 관왕묘 건치와 관우신앙의 양상』, 『민속학연구』 제14호, 국립민속박물관, 2004, 411쪽.

43) 관왕묘에 대해서는 정은영, 『조선 후기 통신사의 관왕묘 방문과 그 의미』, 『국제어문』 제50집, 국제어문학회, 2010, 71-79쪽 참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열어질 수밖에 없는 전쟁의 흔적을 기억으로 대체하여 재현하는 동시에 정치 이념에 따라 조선 사회를 안정화시키는 역할을 하였다. 특히 통신사는 前例를 행동 규범, 문체 상황의 판단 기준으로 삼았기에 통신사행원으로 선발되면 이전 사행의 기록을 읽고 숙지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또한 이전 사행원들이 기록으로 남긴 내용을 확인·수정·확충해 나가며 관련 정보를 심화시켜 나갔다. 이미 정해져 있는 사행 노정에 통신사행록의 전통적 글쓰기 방식까지 더해지면서 통신사 기록 속에서는 임진왜란에 대한 기억 재현이 더 용이하였다.

한편 동래에 도착한 통신사는 이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임진왜란을 떠올리게 되는데, 바로 제향공간을 통해서였다. 임진왜란 이후 선조와 광해군은 전란 때 활약했던 인물에 대한 공신 책훈을, 인조 이후에는 전사한 인물에 대한 제향과 祠宇·서원의 건립, 賜額과 旌表 정책을 통해 전쟁을 기억⁴⁴⁾하게 만들었는데, 그 대표적 인물이 동래부사 송상현이었다.

- 해 늦게 떠나서 저녁에 동래에 닿았다. 이곳은 충신 송상현이 죽음으로 절개를 세운 곳이니, 忠烈祠가 있다.⁴⁵⁾
- 성 밖으로 나가 충렬사에 참배하였다. 동래부 객사 옆에 부사 송상현이 순절한 곳이 있는데 후세 사람들이 그곳에 단을 쌓고 宋公壇이라고 불렀다.⁴⁶⁾
- 두 벗과 함께 東城을 나가서 충렬사에 참배했다. 마침 秋享 齋日이었으므로 5-6명의 유생들이 송충렬과 정충장이 성이 함락되었을 때 순절한 그림[城陷殉身圖]을 구경하고 송시열의 『二忠傳을 읽고 있었다. 정당에 송, 정 두 공을 아울러 제향하고 양산군수 조영규 공, 동래 교수 노개방 공을 배향하고 東廡에는 유생 문덕겸 공, 비장 송봉수, 김

44) 김강식, 앞의 논문, 7-8쪽.

45) 김세렴, 『해사록』, 9월 5일(병오), “日晩發行。夕抵東萊。卽忠臣宋 象賢。壬辰死節處。有忠烈祠”

46) 홍경해, 『수사일록』, 12월 17일, “出城外拜忠烈祠 本府客舍傍 有宋東萊殉節處 後人築門之 遂稱以宋公壇”

희수 공을, 서무에는 겸인(兼人) 신여로, 향리 송백, 읍민 김상을, 문 밖의 별사에는 송공의 기생 금섬과 정공의 기생 애향을 배향하였다. (중략) 사당에 참배를 마치고 여러 居齋(儒生)에게 이르기를 “제군들이 장차 이 사당을 모실 것이니 우리들 마음이 흡족하오. 이 일은 단지 충성스러운 영령들 뵈기가 부끄러울 뿐만 아니라 여러 유생들 보는 것도 부끄럽소.”라고 했다.⁴⁷⁾

동래에 도착한 전대의 통신사가 허물어진 성, 황무지가 된 땅 등 전쟁의 흔적을 보고 임진왜란을 떠올렸다면 18세기에 이르러서는 충렬사를 통해 동래성 전투를 기억하게 되었다. 1594년 강화협상 자리에 나간 경상우병사 김용서는 소서행장으로부터 그의 장렬한 죽음을 전해 듣고 이를 조정에 알렸다. 그러다 1605년 동래부사로 부임한 윤훤이 宋公祠를 세워 송상현에 대한 享祀를 시작하였고 1622년에는 선위사 이민구가 송공사에 대한 사액을 건의, 1624년 忠烈이라는 사액을 받으면서 송공사가 충렬사가 되었다. 1651년 부임한 윤문거가 ‘祠로써 충의를 표창하고 院으로 도를 높인다’고 하여 사우로 남아있던 충렬사를 이전·확장하여 안락서원을 세워 지역 유림을 양성하고 그 안에 충렬사를 조성하였는데 이때가 바로 임진왜란 발발 1주갑이 되는 해(1652)였다. 그리고 1709년 동래부사 권이진이 별사를 세워 송상현과 함께 순국하였으나 충렬사에서 배향되지 못한 인물들을 모셨다.⁴⁸⁾

병자사행의 부사 김세렴은 동래를 충신 송상현이 죽음으로 절개를 세운 곳이라고 기록하였다. 그가 동래를 방문한 때가 충렬사라는 사액이

47) 남옥, 『일관기』, 8월 22일(병오), “與兩友出東城 拜忠烈祠 值秋享齋日 有五六童甫觀宋忠烈鄭忠壯城陷殉身圖 讀尤翁二忠傳 正堂並享宋鄭兩公 配梁山守趙公英珪東萊教授盧公蓋邦 東廡儒生文公德謙裨將宋公鳳壽金公希壽 西廡僉人申汝櫓鄉士人宋伯邑民金祥門外 別祀宋公妓金蟾鄭公妓愛香 (中略) 拜祠畢謂齋生曰 諸君將事此祠 吾儕甘心 是役非但愧謁忠靈羞 見諸童甫也”

48) 송상현에 대한 추인 과정에 대해서는 변광석, 앞의 논문, 191-193쪽; 오인택, 앞의 논문, 37쪽; 김강식, 앞의 논문, 22-24쪽; 양홍숙, 앞의 논문, 296-297쪽 참조.

내려진 지 12년이 지난 시점이므로 송상현의 죽음이 사람들에게 알려졌으리라 생각되며, 김세렴이나 통신사행원들이 충렬사를 방문했을 것으로 여겨지나 관련 기록은 남아 있지 않다. 그러나 1747년 정묘사행의 자체군관이었던 홍경해는 충렬사에 가서 참배를 하였다고 기록하였는데, 뒤이은 계미사행에서도 제술관을 비롯한 서기들도 충렬사에 가 참배를 하였다. 마침 추향 재일이라 사행원들은 동래의 유생들을 만날 수 있었는데, 이 자리에서 제술관 남옥은 유생들의 노고를 치하하며 이곳에 모셔둔 영령들을 뵈니 일본과의 교린을 위해 사행을 떠나는 자신들이 부끄럽게 느껴진다고 통탄스러운 심정을 밝혔다. 서기 김인겸 역시 “우리 길(사행길) 생각하니 괴루(愧淚: 부끄러운 눈물)를 금할소냐”라며 원수의 나라인 일본으로 떠나야만 하는 괴로운 심정을 토로하였다.⁴⁹⁾ 이처럼 통신사는 충렬사라는 별도의 제향공간에서 임진왜란 때 순절한 선인을 참배하며 전쟁을 기억하고 그들의 의기를 본받아야 한다고 자신들을 독려했다.

한편 1719년 기해사행의 정사 홍치중은 부사, 종사관과 함께 부산진성에 올라 일명 萬世德紀功碑, 釜山子城碑銘으로 불리는 釜山平倭碑銘을 보았다.

- 부사, 종사와 함께 부산진 뒷산 정상에 올랐다. 임진년 때의 명나라 장수 만세덕의 비가 있었는데 새로 세운 것이나 옛날에 세운 것이나 다 낡아서 읽을 수가 없었다. 멀리 대마도를 바라보니 쪽 뺨은 푸른 바다 한 자락 가운데의 푸른 연기와도 같아서 바라만 보면 그리 먼 것도 아니었다.⁵⁰⁾
- 황제께서는 인자함으로 세상을 덮어 먼 변방의 사람도 이를 믿어 의

49) 한태문(2005), 앞의 논문, 106쪽; 정은영(2019), 앞의 논문, 17-18쪽.

50) 홍치중, 『해사일록』, 5월 17일(기축), “與副使從事 登釜山鎮後山頂上 有壬辰天將 萬世德碑 新舊兩石 皆頽缺不可讀矣 遙見對馬島 如一抹青煙 橫巨海濤之中 望之 不甚遠矣”

지하는데 이 흉악한 효경이 꿈틀거리며 제후의 강토를 침략하였네. 이에 六軍을 정돈하고 저들을 막아 정벌하여 추악한 적을 사로잡으니 그 누가 인자한 이에게 대적하라. 잔혹한 자 취하고 약한 자 세워 주어 해방을 고요하게 하니 먼 나라 복종하게 하고 가까운 나라 회유하여 사방을 풍화하였네. 저 높은 산을 쳐다보면 천자의 위엄 혁혁하고 저 바다의 물 따라내도록 황제의 은덕 망극하도다. 손 모아 절을 하고 돌에 새겨 큰 공적을 밝히나니, 천년 만년토록 영원히 왕국을 안정시키리.⁵¹⁾

- 부산 자성에 부러진 碑가 있는데, 명의 經理 만세덕이 東征한 功을 서술하고, 將士 59인의 성명이 陰刻되어 있습니다. 萬公은 卿貳의 존귀한 몸으로 旌節을 가지고 우리나라에 와서 2년 동안 수고롭게 지켰으니 經에 이른바 ‘큰 환난을 막았으니 제사지내야 한다.’는 데에 합당합니다. 지금 나라에서 힘을 다하여 날마다 쌀과 베를 이 땅에 실어 보내어 원수인 倭人들에게는 주고, 명나라의 여러 해 동안 힘써 원수를 없앤 사람에게는 한 조각 쯤을 준비하여 분향한 적이 없었으니, 신은 이를 슬프게 여깁니다. 마땅히 이 땅에 만공을 위해 廟宇를 세워 변방의 백성으로 하여금 영구히 이 賊을 잊을 수 없게 하시고, 영구히 이 은혜를 잊을 수 없다는 것을 알게 하소서.⁵²⁾

만세덕은 경리 양호를 대신하여 1597년 12월 조선에 와 정유재란이 끝날 때까지 조선에 머물렀다. 종전 이후에는 동해를 순시하러 왔다 부산을 방문하였는데 황제의 위엄이 이곳까지 미쳤음을 기념하여 兵部職

51) 부산광역시, 『국역 萊營誌』, 부산광역시사편찬위원회, 2001, 104쪽.

52) 『숙종실록』 49권, 36년 11월 10일(경자), “釜山子城 有折碑 敍天朝經理萬世德東征之功 其陰刻將士姓名五十九人 萬公以卿貳之尊 杖節東臨 勞戍二年 亦經所謂抗大難 則祀之者也 今者竭國之力 日輸米布於此地 以給饑倭 而不爲天朝累年勞苦 廓清歸賊之人 燒一瓣香 臣竊悲之 宜於此地 爲萬公立廟 使邊民知萬世不可忘此賊 萬世不可忘此恩”

方司郎中 賈維鏞에게 비문을 짓게 하고 參將 陳蠶에게 비를 세우게 하였다.⁵³⁾ 만세덕의 비문에는 신종이 제후국 조선을 침략한 오랑캐 일본을 정벌하였다는 점, 그렇게 세상을 교화하니 그 은혜가 망극하다는 내용이 새겨져 있었다. 그러나 비가 부러져 방치되었다가 1709년 동래부사 권이진이 이를 발견하고는 구리를 부어 보수하였다. 권이진은 조선 사람들이 명 신종이 만세덕을 보내 베풀어준 큰 은혜를 잊어버려 이런 지경에 이르렀다며 비각을 지어 비를 안치하였다. 또 조정에는 명이 조선을 도와 준 은혜도, 그리고 조선을 침략한 일본도 잊지 않게 해야 한다며 만세덕을 제향하는 묘우를 세울 것을 건의하였다. 이후 만세덕의 비각은 임진왜란을 기억하고 재조지은을 상징하는 장소로 인식되었다.

임진년 때 사람들 모두 어육이 되었는데	壬辰之歲人盡魚
다행히 백 년 후에 다시 터를 잡았네	幸觀百年復奠居
신종황제가 은혜 베푼 땅	神宗皇帝樹恩地
한 마디의 거친 밭도 모두 새밭 되었네	一寸荒田皆得畬

섬 오랑캐 번심하기 민땅 시냇물과 같으니	島夷反覆類閩溪
다른 날 흉악한 짓 안 할지 어찌 알겠나	安知他日不鯨鯢
장문원처럼 변방을 지킬 수 있다면	守邊得似張文遠
오아로 하여금 밤에도 울지 않게 할텐데	可使吾兒夜不啼 ⁵⁴⁾

기해사행의 자제군관이었던 정후교는 부산에 머물며 느낀 감흥을 시로 지어 남겼다. 정후교는 임진왜란 때 부산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피폐해졌는데 명 신종이 은혜를 베풀어 모두가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고 표현하였다. 이때 말하는 신종의 은혜란 곧 조선에 원군을 보낸 것이며 재조지은의 다른 말이었다. 뒤이어 정후교는 일본을 섬 오랑캐로

53) 박현규, 『임진왜란 명 水將 季金의 유적과 조선 문사의 수창 시편』, 『이순신연구논총』 제23호, 순천향대 이순신연구소, 2015, 13쪽.

54) 정후교, 『부상기행』, <釜山歌十首>

지칭하며 그들이 언제 흉악한 마음을 먹고 조선을 침략할지 모른다고 하였다. 그러면서 자신이 오나라를 찢찢매매게 만들었던 위의 장수 張遼처럼 변방을 지킬 수 있다면 좋겠다는 바람을 이야기하였다. 정후교가 보기에 부산은 조선을 위기에서 구해준 명 신종의 재조지운을 생각나게 하는 장소이자, 호시탐탐 조선을 노리는 오랑캐 일본이 지척에 있는 곳이었다.

- 西城을 나가 구에 도착하여 도해선 6척을 구경하고 식파정에 앉아서 태종대와 절영도, 왜관을 바라보았다. 전함소를 따라서 영가대에 올라가니 대가 더욱 상쾌하고 아름다웠다. 인하여 鄭忠壯公의 戰亡碑를 보았다. (중략) 저녁에 將臺의 東征將士碑를 구경했다.⁵⁵⁾
- 두 사신이 萬公壇에 올라갔다 돌아왔다.⁵⁶⁾

계미사행의 제술관 남옥은 만세덕의 비는 물론 충장공 정발의 전망비도 보고 왔다고 기록하였다. 동래부사 송상현에 이어 부산진첨사 정발 역시 임진왜란 때의 공훈이 인정되어 충장공이라는 시호를 받았으며 충렬사에서 제향하였다. 1761년 절도사 박재하가 그 공덕을 기리기 위해 영가대 안에 비를 세웠다. 박재하는 그 비문에 부산진은 오랑캐 일본의 배가 왕래하는 첫 길목인데 이곳에 충장공의 전망비를 세운 것은 부산 백성들의 민심을 격동시키고 일본의 간담을 서늘케 하기 위해서라고 밝혀 적었다. 아울러 석자의 작은 비문이라도 일본을 경계하고 대비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하여 임진왜란을 기억하는 또 하나의 장소를 조성하였다.

더 이상 전란의 흔적을 찾아볼 수 없는 시점에 일본으로 파견된 통신

55) 남옥, 『일관기』, 8월 23일(정미), “西城到港口觀渡海船六艘 坐息波亭望太宗臺絶影島倭館 戰艦所係上永嘉臺尤爽麗 仍觀鄭忠壯公戰亡碑 (中略) 夕觀將臺東征將士碑”

56) 유상필, 『동사록』, 3월 4일, “兩使臣登萬公壇而還”

사행원들은 동래의 충렬사, 부산진성의 만세덕 비, 또 영가대의 정충장공 전망비 등을 통해 임진왜란을 기억하게 되었다.⁵⁷⁾ 조국을 위해 순절한 선인을 보며 그들의 충절을 내면화하는 것은 물론 오랑캐 일본에 대한 경각심을 되새겼다. 그리고 조선의 구원병을 보낸 명 황제와 만세덕을 기리며 재조지은을 생각하였다.

4. 결론

부산은 임진왜란, 또 통신사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임진왜란 최초의 전투가 벌어진 곳이자 7년 간 일본군의 병참기지 역할을 했던 곳이었다. 그래서 전쟁의 흔적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공간이었다. 아울러 부산은 통신사 노정의 종착지이자 일본으로 떠나는 출발지였다. 그래서 부산에서는 다른 경유지에 비해 오랜 시간을 체류하며 사행 준비에 만전을 기했다. 또 통신사행원들은 해신제나 전별연 등 사행과 관련된 공식 행사에 참여하였고, 공무가 없을 때에는 시간을 내어 부산의 곳곳을 누비며 객수를 달래기도 하였다. 그래서 조선후기 통신사행록 속에는 부산의 다양한 모습이 기록되어 있다.

그 중 하나는 임진왜란에 대한 기록이다. 조선후기 첫 번째 통신사는 임진왜란 종전 후 10년 만에 파견되었다. 또 통신사의 국내노정은 임진왜란 당시 일본군의 북상 경로와 비슷하였다. 그래서 당시 통신사행록에

57) 부산에는 이들 유적 외에도 다대포첨사 윤홍신을 기린 尹公壇이 있다. 1763년 계미사행의 서기 원중거가 지은 윤공단 관련 시가 『萊營志』에 수록되어 있으나, 윤공단이 1765년에 건립되었기 때문에 그가 통신사로 부산을 방문했을 때 남긴 것이라 볼 수 없다. 오히려 윤공단을 세운 다대포첨사 이해문이 원중거와 함께 통신사행에 참여했으므로 그 인연으로 윤공단 건립 이후 시를 썼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므로 원중거의 시는 본 연구주제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자료에서 제외한다. 한편 1811년 신미사행록에는 통신사행원들이 윤공단을 방문했다는 기록이 전하지 않는다.

는 노정 중에 목도하게 된 전란의 흔적이 고스란히 기록되어 있다. 통신사행원들은 일본에 대한 적개심을 애써 누르며 복명사신으로서의 임무를 다하려고 했지만 부산으로 내려오는 국내 노정 중에, 또 부산 체류기간 동안 조선 곳곳에 남아있던 임진왜란의 흔적을 직접 보았고 전쟁으로 야기된 경제적 열악함을 몸소 겪었다. 그러한 경험은 일본군이 퇴각하는 것에서 전쟁이 끝나지 않았음을, 또 수십 년이 지난 시점까지 그 상처가 아물지 않았음을 깨닫게 하였다. 조선후기 통신사행록에는 임진왜란의 흔적이 남아있는 한 전쟁과 그로 인한 고통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는 점이 뚜렷하게 기록되어 있다.

반면 18세기가 되면 전쟁의 흔적이 점점 멀어지게 되었다. 하지만 임진왜란의 흔적 대신 그 참상과 고통을 기억할 수 있는 공간이 국가 혹은 지방 주도로 조성되었다. 더 이상 전란의 흔적을 찾아볼 수 없는 시점에 일본으로 파견된 통신사행원들은 동래의 충렬사, 부산진성의 만세덕 비, 또 영가대의 정충장공 전망비 등을 통해 임진왜란을 기억하게 되었다. 조국을 위해 순절한 선인을 보며 그들의 충절을 내면화하는 것은 물론 오랑캐 일본에 대한 경각심을 되새겼다. 그리고 조선의 구원병을 보낸 명 황제와 만세덕을 기리며 재조지은을 생각하는 방식으로 임진왜란을 기억했다.

참고문헌

- 민족문화추진회, 『국역 해행총재』, 민문고, 1989.
- 『조선왕조실록』
- 김인겸, 『일동장유가』 (서울대학교 규장각 소장)
- 남옥, 『일관기』 (국사편찬위원회 소장)
- 변탁, 『계미수사록』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 성대중, 『일본록』 (고려대학교 도서관 소장)
- 원중거, 『승사록』 (고려대학교 도서관 소장)
- 조엄, 『해사일기』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 남옥 지음·김보경 옮김, 『일관기-붓끝으로 부사산 바람을 가르다』, 소명출판, 2006.
- 박재 지음·김성은 옮김, 『동사일기』, 보고서, 2017.
- 부산광역시, 『국영 래영지』, 부산광역시사편찬위원회, 2001.
- 성대중 지음·홍학회 옮김, 『일본록-부사산 비파호를 날 듯이 건너』, 소명출판, 2006.
- 원중거 지음·김경숙 옮김, 『승사록-조선후기 지식인, 일본과 만나다』, 소명출판, 2006.
- 정후교 지음·장진엽 옮김, 『부상기행』, 보고서, 2019.
- 한일관계사학회편, 『역주 교린제성』, 국학자료원, 2001.
- 홍경해 지음·하우봉 옮김, 『수사일록』, 보고서, 2018.
- 홍치중 지음·허경진 옮김, 『해사일록』, 보고서, 2018.
- 김강식, 『조선후기의 임진왜란 기억과 의미』, 『지역과 역사』 31호, 부경 역사연구소, 2012, 5-40쪽.
- 김강식, 『조선시대 해항도시 부산의 모습-군항과 해항』, 선인, 2018.
- 김경태, 『임진·정유재란기 동래 지역의 전황-일본군의 주둔 동향과 조

- 선의 대응을 중심으로-』, 『항도부산』 38권, 부산광역시 시사편찬위원회, 2019, 1-39쪽.
- 김동철, 「통신사행과 부산의 역할」, 『통신사 한·일 교류의 길을 가다』, 조선통신사문화사업추진위원회, 경성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03, 9-24쪽.
- 김동철, 「부산의 일본 관련 문화유적과 활용방안」, 『한국민족문화』 23권,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2004, 259-276쪽.
- 나성린, 「울산성 전투와 울산왜성」, 『1598 정유재란』, 국립진주박물관, 2017, 276-284쪽.
- 박현규, 「임진왜란 명 水將 季金의 유적과 조선 문사의 수창 시편」, 『이순신연구논총』 제23호, 순천향대 이순신연구소, 2015, 1-29쪽.
- 변광석, 「임진왜란 이후 동래부사의 동래지역 인식과 기억사업」, 『지역과 역사』 26호, 부경역사연구소, 2010, 179-210쪽.
- 송지원, 「朝鮮通信使와 儀禮」, 『조선통신사연구』 제2호, 조선통신사학회, 2006, 25-59쪽.
- 송혜영·서치상, 「부산진성의 공간구성과 변화과정 연구」, 『건축역사연구』 28권 4호, 한국건축역사학회, 2019, 37-46쪽.
- 양홍숙, 「부산의 임진왜란 기념물 조성과 도시경관화」, 『지역과 역사』 40호, 부경역사연구소, 2017, 289-323쪽.
- 오인택, 「조선후기 ‘충렬공 송상현 서사’의 사회문화적 성격」, 『역사와 세계』 40, 효원사학회, 2011, 33-70쪽.
- 윤덕진, 『선석 신계영 연구: 역주 선석유고 합철』, 국학자료원, 2002.
- 이경희·조수미·한태문, 「永嘉臺 海神祭 祭需 요리의 원형복원에 대하여」, 『조선통신사연구』 제8호, 조선통신사학회, 2009, 107-138쪽.
- 이상훈, 「신립의 작전지역 선정과 탄금대 전투」, 『군사』 제87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13, 275-302쪽.
- 이성혜, 「임진왜란이 만든 부산문학」, 『한일군사문화연구』 제14집, 한일

- 군사문화학회, 2012, 159-174쪽.
- 장장식, 「서울의 관왕묘 건치와 관우신앙의 양상」, 『민속학연구』 제14호, 국립민속박물관, 2004, 402-440쪽.
- 정영문, 「통신사가 기록한 국내 사행노정에서의 전별연」, 『조선통신사연구』 제7호, 2008, 35-68쪽.
- 정영문, 「국내 '통신사길'에 나타난 지방공연문화의 양상과 의미 고찰」, 『열상고전연구』 30, 2009, 65-92쪽.
- 정은영, 「조선 후기 통신사의 관왕묘 방문과 그 의미」, 『국제어문』 제50집, 국제어문학회, 2010, 63-91쪽.
- 정은영, 「『일본왕환일기』의 통신사행문학적 위상 재고」, 『국제어문』 제67집, 국제어문학회, 2015, 115-142쪽.
- 정은영, 「1763년 계미통신사의 부산 체류 양상 연구」, 『조선통신사연구』 제28호, 조선통신사학회, 2019, 1-38쪽.
- 하우봉, 「16세기말 동아시아 국제전쟁」, 『동아시아의 역사 II』, 동북아역사재단, 2011, 240-242쪽.
- 하우봉, 「김성일의 일본 인식과 귀국보고」, 『한일관계사연구』 43호, 한일관계사학회, 2012, 127-173쪽.
- 한태문, 「조선후기 대일사행과 영가대 해신제」, 『통신사 한·일 교류의 길을 가다』, 조선통신사문화사업추진위원회, 경성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03, 27-54쪽.
- 한태문, 「경인통신사(1590)의 문화사절로서의 성격」, 『동양한문학연구』 제36집, 동양한문학회, 2013, 307-334쪽.
- 한태문, 「통신사 문학에 반영된 조선시대의 부산 - 『해행총재』 소재 사행록을 중심으로」, 『항도부산』 21권, 부산광역시사편찬위원회, 2005, 89-130쪽.
- 허남린, 「정유재란을 어떻게 볼 것인가? : 전쟁의 추이와 삼국의 전략구도」, 『정유재란 1597』, 국립진주박물관, 2017, 14-16쪽.

<Abstract>

The scars of war expressed in the Record of
Joseon Tongsinsa in the late Joseon
Dynasty, and Busan

Jeong, Eun-Young*

Busan is closely connected to Japanese invasion (of Korea in 1592) and Joseon Tongsinsa(Korean missions to Japan). It was the place where the first battle of Japanese invasion took place and served as a logistical base of the Japanese military for seven years. So, it was a space that kept the traces of war. Besides, Busan was the destination of Joseon Tongsinsa's journey and point of departure to Japan. Therefore, various views of Busan was expressed in the Record of Joseon Tongsinsa in the late Joseon Dynasty.

One of them is a record of the Japanese invasion. Since the route of Joseon Tongsinsa's journey within the country was similar to the marching-north route of the Japanese army at the time of the Japanese invasion, the traces of the war that was witnessed during the journey were recorded in the Record of Joseon Tongsinsa. Members of Joseon Tongsinsa tried to fulfill their duties as envoys submitting a report of King, suppressing the hostility to Japan, but they had to witness the traces of Japanese invasion and experience the economic inferiority caused by the war, during their journey within the country to Busan, and during their stay in Busan. Such

* Pusan National University.

experiences made them realize that the war was not over from the retreat of the Japanese army, and that the scar of war did not die away until the decades passed. The Record of Joseon Tongsinsa in the late Joseon Dynasty clearly states that the war and the suffering caused by it cannot help going on forever as long as there are traces of the Japanese invasion

However, as time went by, the traces of war gradually faded, and a space to remember the horrors and sufferings of the Japanese invasion was alternatively created by the state or provincial government. Members of Joseon Tongsinsa who were dispatched to Japan, at the time when no traces of war could be found, internalized the loyalty and incision of the ancestors who devoted their lives to their country and commemorated the Ming Dynasty which sent reinforcement for Joseon, through the monuments of Dongrae's Chungryulsa Temple, Busan Jinseong and Yeonggadae. In the process, they tried to remember the Japanese invasion and arouse attention to Japan.

Key Words : Joseon Tongsinsa, Tongsinsaengrok(the Record of Joseon Tongsinsa), Japanese Invasion of Korea, Busan, Memories of war

■ 논문접수 : 2020년 2월 28일
■ 심사완료 : 2020년 4월 13일
■ 게재 확정 : 2020년 4월 17일

